

한보청문회 “참회도 진실도 없었다”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가 7일부터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과 김현철씨 등 41명의 증인과 참고인 1명을 상대로 청문회 활동에 들어갔다. 한보청문회가 시작된 첫날 국민들의 눈과 귀는 청문회를 생중계하는 TV와 라디오로 쏠렸다.

그러나 증인들은 특위위원들의 질문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위원들의 자료준비와 질문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동료의원이나 상대정당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을 해 위원들끼리 티격태격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위원들은

“정경유착 환부 도려내라” 국민여망 무시 30일까지 현철씨등 관련증인 41명 신문

성실한 준비와 설득력있는 논리로 증인을 몰아붙여 여야 중진정치인 정치자금 제공, 정씨의 추가재산, 전청와대 경제수석 집착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얻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경유착비린 한보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궁금해하면서도 여야지도부 등 국회의원 다수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 점을 감안, 실망을 금치 못했다.

깊이 뉘우쳐 숨김없이 고백하라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과를 여러 사람들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참(懺)이라 하고, 그 죄과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을 회(悔)라 한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참회라 부른다. 참회는 다시 ‘희망의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고종실 하나포럼 공동대표(경기대학교수)는 한보사건은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부처님이 가르친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의 자세가 절실하다. 선을 통해 자각을 일깨우고 참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시 이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참회계)

지는 정씨를 비롯해 흥인길 정재철 황병태 권노갑의원 등 재소자 12명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한다. 이어 30일까지 김현철 박태중씨와 박경식 G남성클리닉원장 등 29명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많은 증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어느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해도 서로 연관을 지니고 있어 앞뒤 안맞는 모순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정치·경제적 지도층 인사들이 증인들에게 국민들은 참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정태수씨에게는 다시 참회의 기회가 주어졌다.

정성운 기자



성낙주 (청동종교사·소설가)

아 앓아 있었다. 그때도 진실은 멀리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진실의 허약함만은 아니었다. ‘역사의 힘’이라는 것도 아울러 목격했다. 아수라 같은 ‘저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끌어냈던 것이다.

올봄도 마찬가지다. 저 오만한 권력이 결국 고개를 꺾었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저들’을 그 자리에 세웠다. 정법과 자비를 유린하던 권력과 탐욕에 찬 천민자본주의도 함께 끌려나왔다. 저들은 응보(應報)의 심판대에 서서 초췌한 모습을 거짓 미소로 감추고 있다.

미흡한 대로 이것은 역사의 진본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작은 결실이다. 여기서 지혜를 보태어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 일시적인 흥분, 맹목적인 적개심, 체념은 금물이다. 감정적인 ‘청문회 무용론’이 아니라,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패의 사슬을 끊도록 해야 한다. 더욱 치밀한 그물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겨레의 남쪽엔 절망(絶望)의 순간을 거짓의 입으로 맞이했다. 학살자의 입은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 시간도 철창에 갇혀 있다.

저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시인한 경우가 없었다. 이따금 눈물을 흘렸지만 값싼 동정을 구하는 ‘악의 눈물’

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에 바쳐진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늘도 수많은 일이 TV 화면에 등장한다. 권력의 입에서 계변과 왜곡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천민자본주의 입들은 뱀소리를 흘리고 있다. 참으로 유구한 악과 거짓의 입이다. 저들의 입을 바르게 열게 할 정법의 칼은 어디에 있는가.

저들은 정제(淨戒)를 모른다. 보시(布施)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탐욕의 성(城)에 재물을 쌓는 것밖에 모른다. 그 재물이면 북녘 겨레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음을 알고도 하지 않는다.

저비행(慈悲行)도 모른다. 인과(因果)의 법칙도 알지 못한다. 교만의 성(城)에 갇혀 연꽃을 뽑아 버리는 것밖에 모른다.

북녘 동포를 향해 미움의 화살을 날리는 것밖에 알지 못한다. 나라와 겨레가 결판나는 데도 뒷거래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그리 낮은 품격도 아니다. 10년전에도 그 자리에는 이 나라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이 번갈

맞는다. 들관과 강인덕에는 투명한 빛과 빛이 어우러진다. 정말 겨울 나미 저 끝에서 아무런 기억도 없었는데 말이다.

지혜의 금강저를 갈자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진후의 눈에서 솟아나는 연꽃의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을 배워야 한다. 지혜의 금강저로 미망의 군상들을 제도해야 한다. 석굴암의 인왕역사(仁王力士)처럼 눈을 부릅뜨고 연말의 대선에서 우선 그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기 위해 또 백성들을 징발하고자 할 때 외사대사가 오만한 권력을 향해 던진 다음의 일갈이다.

“왕의 정치가 밝다면 비록 풀이 덕에 금을 그어서 성이라고 하여도 백성들이 감히 넘지 못하고 재물을 짓는 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밝지 못하다면 비록 장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재물을 먼치 못할 것입니다.”

지계

금주

파계

산악인 남북교류 청신호

●...아시아산악연맹이 7일 열린 이사국 예비회의에서 북한의 회원국 가입을 승인함에 따라 남북간 산악인 교류전망이 밝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악마라톤이나 암벽등반경기대회와 북한 개최 제안도 나왔으며 오는 11월 테헤란총회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측이 암벽등반대회를 수용할 경우 50년만에 처음으로 산악인 남북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산재병원 개원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직업병 피해보상금을 각축해 설립한 직업병 전문의료기관 ‘원진의원’이 8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개원했다. 일반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4개 진료과목을 갖춘 이 병원의 개원으로 640여명의 원진레이온 피해노동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다.

용산구 ‘장례도우미’ 운영

●...용산구는 지난 1일부터 ‘장례도우미’

제도를 운영, 생활이 어렵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나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도와주고 있다. 구는 연고자가 없을 경우 장례를 대행하고 장례비와 조향세도 지원한다. 종로구도 이달부터 혼자 사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위한 ‘이사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소복장 방송출연 결의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는 황수경씨 등 KBS아나운서 78명은 7일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 검소한 복장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KBS아나운서실에서 모임을 갖고 앞으로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화려한 의상과 목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 지역문화제 지원

●...LG전자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진도 영등재와 진해 군항제, 남원 춘향제, 진주 개천예술제, 충주 우뚝문화제 등 5개 지역문화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 90년부터 매년 2억~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문화행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위스키 수입증가율 세계1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스카치위스키 수입증가율이 44%로 세계최고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억6백만달러를 수입해 세계 4위의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4일 영국 주류전문잡지 ‘드링크스 인터내셔널 블래틴’ 최근호를 인용, 지난해 주요수입국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순이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여행객 씀씀이 1위

●...뉴질랜드를 찾는 외국인 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씀씀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질랜드관광국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를 다녀간 한국인 12만 7천여명이 쓴 경비는 1인 1일 평균 3백45뉴질랜드달러(우리돈 20만7천원)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 산악자전거 사고위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국산자전거 2개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자전거 4개 등 산악용 자전거 6개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 조립제품이 안전성에 허점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립제품인 ‘BITEC City MAN’은 제품력이 떨어져 내리막길 등에서 사고위험이 높았고, 또 ‘ALTON 300LE’는 넘어지거나 충돌할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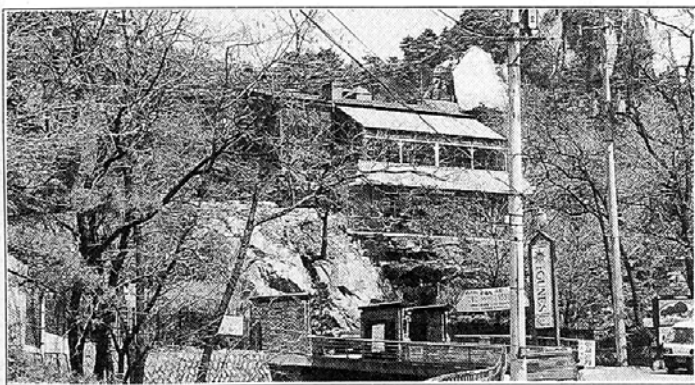
韓銀 임직원 ‘특혜대출’

●...감사원은 한국은행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개인당 1억5천만원 이상을 여러 은행으로부터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임직원 30여명을 확인, 이들이 은행에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체조사도 한국은행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대출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KAL 낙동강에 폐수방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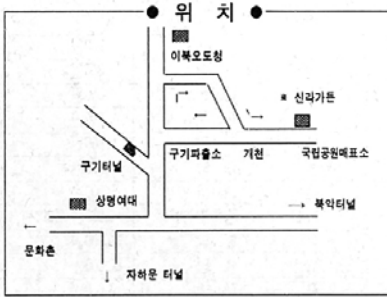
●...대한항공이 고농도의 폐놀류가 포함된 폐수를 김해평야의 농수원인 서낙동강으로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부산지역내 폐수배출체제를 단순한 결과 부산 강서구 김해평야내 대한항공이 항공기 기준치 3PPM을 초과한 폐놀류 농도 5.473PPM의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금 선원·포교당 최적지 매



소유토지내역

지번	지목	면적	평수
종로구 구기동 8번지	대지	878㎡	266평
종로구 구기동 8-1번지	대지	84㎡	25평
종로구 구기동 172-3번지	대지	496㎡	150평
종로구 구기동 172-9번지	대지	496㎡	150평
종로구 구기동 172-4번지	전	331㎡	100평
종로구 구기동 172-7번지	전	1,081㎡	327평
종로구 구기동 172-1번지	전	3,236㎡	979평
종로구 구기동 172-5번지	도	83㎡	25평
계		6,685㎡	2,022평



- 172-1번지 979 평은 그린벨트임
- 북한산국립공원 구기분소(매표소)와 붙어있음
- 정원수 많이 있음
- 건평은 약 230평(지하층 및 1, 2, 3층 그리고 펜트하우스)

문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8번지 연락처 : (02)394-1864/5

인사말씀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법아리 道賢精舍 會主 開翁堂 道賢禪師께서 佛紀2541年 3月26日(음2월 18일 지장재일) 오후 1시 17분에 道賢精舍에서 歲壽 87歲 法納 37歲로 入寂하시어 佛紀 2541年 3월 28일(음2월 20일) 晉州市立茶毘場에서 玉泉寺葬으로 永訣式과 茶毘式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間 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하시고 開翁堂道賢禪師 榮扶式과 茶毘式에 參禮하여 주신 敎界 元老, 大德스님을 위시하여 四部大衆및 各界 人士諸賢께 眞心으로 感謝의 人事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옵고 人事드림이 道理인줄 아오나 慌忙中 優先 紙面으로 深甚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四十九齋 案内

97년 4월 29일 (음 3월 23일 10시)
48절 및 사찰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5재에
부도 제막식 및 천도제를 도현정사에서 모십니다.

追慕齋

1. 97년 5월 6일(음 6월 30일 오전10시) 삼천포 모충사
2. 97년 5월 13일(음 4월초 7일 오전10시) 삼천포 모충사

百日追慕齋

97년 7월2일(음5월28일 오전10시) 고성 옥천사 청연암

도현정사 전화 (0595)82-5431
옥천사 전화 청연암 (0556)72-0078/73-5741
모충사 전화 (0593)34-3450/3380. 전송 34-3850

불기 2541년 3월 일

上佐 承旭. 白山. 墨和. 南一.